

“결핵퇴치를 위한 TB도우미사업 본격 실시”

글 오수연(결핵연구원 국내기술협력과장)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는 2009년 2월 2일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완치를 위한 결핵사례관리서비스(보건교육 및 상담, 복약확인 등)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결핵관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빠른 속도로 환자수가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로는 감소 속도가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인 실정이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결핵환자의 치료기관 선호도 변하고 있다. '96년 결핵신환자 치료분담률은 보건소 67%, 민간 병·의원 33% 수준이었으나 '08년도에는 보건소 20%, 민간 병·의원이 80% 수준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민간 병원 결핵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결핵사례관리 서비스가 요청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에게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결핵 완치율을 높이고자 올해 2월 2일부터 22개 민간의료기관에 사례관리요원(전담 간호사) 24명을 배치하고, 61개 보건소에 대한결핵협회 소속 간호사 등 56명을 배치하였다.

나머지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 결핵담당 요원을 임명해 결핵환자에게 보건교육, 복약독려와 건강상담서비스, 가족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2010년부터는 사례관리요원을 민간의료기관과 전국 보건소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들이 결핵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 치료성공률이 향상되고 다제내성결핵과 광범위내성결핵의 발생이 사전 예방되고,

공공·민간 간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질병 관리 협력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결핵 조기퇴치와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을 보면 보건복지가 족부는 국가 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관리팀)는 국가 PPM 사업의 정책 결정, 예산·행정적인 지원을 각각 담당하고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예산을 운용하고 PPM 사업에 필요한 사례관리요원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한다. 대한결핵협회 지부는 각 시도 보건과와 협력하여 PPM사업을 운용한다.

PPM 사업(TB 도우미)이란?

결핵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본 사업은 결핵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칠 때까지 결핵치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공협력 사업으로 민간 병의원기관에 결핵 사례관리자(TB 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PPM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결핵 사례관리자(TB 도우미)가 결핵환자가 치료를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줌으로써 치료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에게 내원독려, 복약확인, 상담 등 철저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핵치료 중단을 최소화시켜 치료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결핵 감소 및 내성 결핵을 방지하여 결핵퇴치를 가속화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 공공 및 민간의료를 통합하여 모든 의료제공자들이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개선시켜 성공적으로 결핵을 퇴치할 수 있게 한다.

아직까지 심각한 보건 문제 중 하나인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결핵 환자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약제내성률조사에서도 다제내성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고 난치성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환자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TB 도우미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PPM 결핵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결핵퇴치를 위한 진일보한 국가결핵관리 방향을 제시고 있다. †